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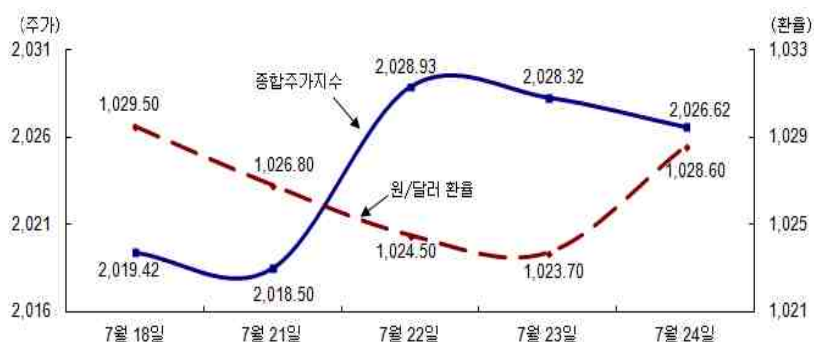
■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전세가 안정으로 소비여력 확대 필요



週間 主要 經濟 指標 (7.18~7.24)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김 천 구 선임 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

Executive Summary

□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전세가 안정으로 소비여력 확대 필요

■ 개요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가계의 주거형태 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소비를 늘리는 자산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또한 전월세가격 변동이 임차가계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가계의 주거형태는 크게 자가, 전세, 월세 가계로 나누어 진다. 자가 가계의 경우 주택매매가격, 전세 가계는 전세가격, 월세 가계는 월세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가계 소비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각각 분석하였다. 자가 가계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미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이 증가하고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여력이 확대되어 소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가계는 임차 비용이 증가할 경우 주거비 상승과 대출 증가 등으로 소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 결과 자가에 주거하는 가계는 주택매매가격이 1% 오를 경우 가계 소비를 0.1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주택에 주거하는 가계는 전세가격이 1% 오를 경우 소비를 0.30%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주택에 주거하는 가계 역시 월세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소비를 0.12%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에 적용시켜보면 최근과 같이 집값 상승세가 부진하고 전월세 가격 불안정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자가, 전세, 월세 가계 모두 소비 위축 현상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최근 회복세가 미약한 소비와 전체 실물경기가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 시사점

첫째,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방지하여 주택보유자들의 자산효과를 통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임차 가계의 경우 전세, 월세 가격 안정화를 통하여 소비 여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셋째,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민간의 주택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1. 개요

- 최근 부동산 시장 부진, 전월세 가격 불안정이 장기화되며 회복세가 미약한 민간소비와 전체 실물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계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대로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의 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73.3%임
 - 이것은 주요국들인 미국(31.5%), 일본(40.9%), 영국(50.1%), 유로존(58.3%), 호주(61.3%)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주택매매가격, 전월세 가격 등 부동산 가격이 변화할 경우 가계는 소비 지출에 영향을 받음
 -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계의 실질적인 부가 증가하고 대출제약을 완화시켜 소비가 증가하는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남
 - 전월세 가격의 상승은 임차 가계의 현재 및 미래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비에 영향을 미침
 - 최근에 소비의 부진한 양상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부진과 전세 가격 불안정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전국의 주택 가격은 최근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세 가격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음
 -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대 증가에 그치고 있어 소비 부진이 국내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주거형태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가계의 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살펴봄
 - 전체 가계를 자가, 전세, 월세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각각 주택매매가격, 전세 및 월세가격의 변화에 따라 소비의 변화를 분석

2. 부동산 가격과 소비

- 주거형태 차이를 고려하여 주택매매가격, 전월세가격의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자산효과는 소득계층, 연령, 경기 국면 등에 따라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내에서 자산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① 자산효과 여부 검증, ② 자산별 효과(주택, 주식) 비교, ③ 소득계층별 효과 등으로 나누어짐
 - Campbell & Cocco(2007)¹⁾는 영국의 가계지출조사(The family expenditure survey)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주거형태별(자가, 임대), 연령별 자산효과를 추정
 - 연구 결과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고 자가에 살고 있는 가계의 주택자산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본고에서는 주거형태별 차이에 따른 자산효과를 Campbell & Cocco(2007)의 방법을 응용하여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국내 부동산 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

< 부동산 가격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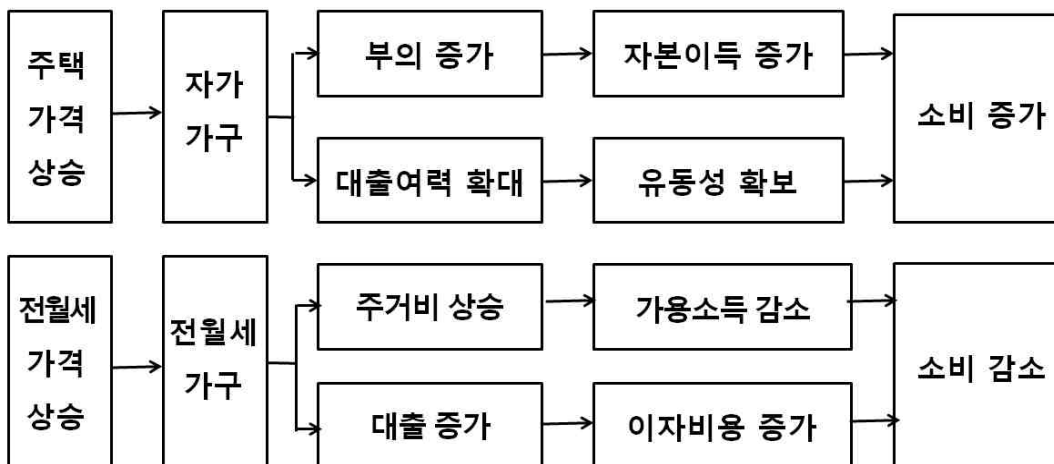
저자	제목	내용
서승환(1994)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시계량분석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가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나타남
한국은행(2007)	가계소비의 자산효과 분석과 시사점	주택가격이 소득계층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유의하지 않음
강민규 등(2009)	주택의 자산효과에 의한 가계소비 변화	주택의 자산효과 탄력성은 약 0.1 정도로 추정
한국은행(2011)	전월세가격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전세 및 월세 가격이 1% 증가할 때 가계소비는 각각 0.15%, 0.0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김용진 등(2013)	연령 그룹별 주택자산효과 차이에 관한 연구	주택자산, 금융자산, 총소득, 고용여부, 교육 정도 등이 비내구재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Case, K.E. et al(2005)	Comparing Wealth Effects	주택자산의 자산효과가 주식자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됨
Haurin, D. et al(2006)	House Price Appreciation, Savings and Consumption Expenditures	소득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택의 자산효과가 크게 나타남
Campbell, J. Y. et al(2007)	How Do House Prices Affect Consumption	고령자 및 자가의 경우 주택자산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1) "Campbell, J, Cocco, J(2007),How do house affect consumption? Evidence from micro data.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 자가 가계는 주택가격 변동, 전월세 가계는 전월세가격 변동에 따라 소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가계의 일반적인 주거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로 나누어지는데 자가 가계는 주택매매가격, 전세 가계는 전세가격, 월세 가계는 월세가격 변동에 따라 소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자가 가계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실질적인 부가 늘고 담보대출을 증가시킬 여력이 확대되어 소비가 증가
 - 주택보유자는 일차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가격이 올라 미래에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이 증가하게 됨
 - 또한 자신이 보유한 주택 가격 상승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여력이 증가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기 쉬워짐
- 전월세 가계는 임차비용이 증가할 경우 주거비 상승과 대출증가 등으로 소비를 줄이게 됨
 - 전월세가격이 상승할 경우 전월세 가계가 현재 및 미래에 지출해야할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 임차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임
 - 또한 전월세 가격 상승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늘려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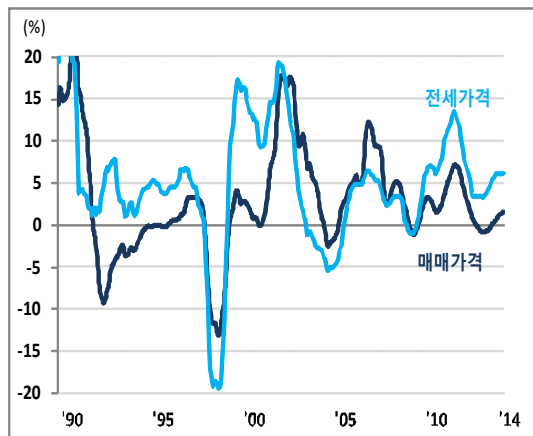
< 주택 및 전월세가격 변동이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 >



○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과 민간소비의 흐름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부터 주택매매 가격과 전세가격 불안정, 소비의 부진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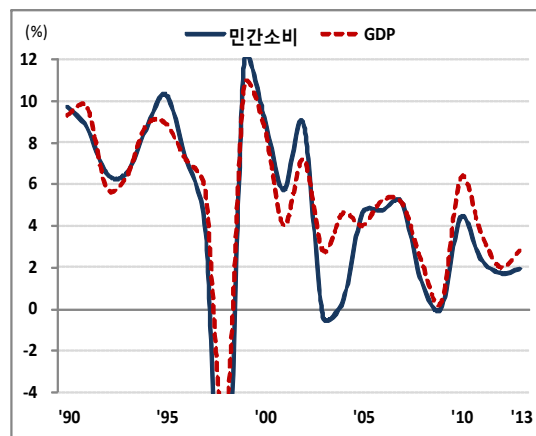
- **부동산 가격**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2000년 초부터 2008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 부진한 모습
 - 주택매매가격은 1990년대에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0년부터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까지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보임
 - 금융위기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비교적 낮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
- **전세가격**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2010년부터 높은 상승세를 보임
 - 전세가격 상승률은 2000년대 중반에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2010년부터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불안한 양상이 지속
- **민간소비** : 민간소비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부진한 양상
 - 민간소비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0~97년에 연평균 7.4% 증가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
 -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7%, 1.9%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연속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 하회

< 주택매매 및 주택전세가격 상승률 추이 >



자료 : 국민은행.
주 : 전년동월대비.

< 민간소비와 GDP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국민계정(200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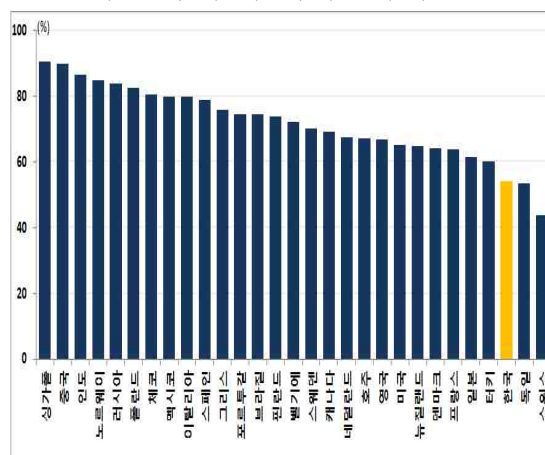
- 우리나라 가계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자가에 주거하는 가계의 비중은 50%대 중반으로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 가계는 자가 주거 비중이 5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임차 가계는 점차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
 - 주거형태 중 자가의 비중은 1990년 49.9%에서 소폭 증가하여 50%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음
 - 전세의 비중은 1990년 20%대 후반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 21.7%를 기록하고 있으며, 월세의 비중은 최근 점차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에 21.5%를 기록
 - 우리나라 가계의 자가 주거 비중은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임
 - 가계의 자가 주거 비중은 약 54.2%로서 미국(65.2%), 영국(66.7%), 프랑스(63.7%), 이탈리아(80.0%) 등 주요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아시아 국가들인 싱가포르(90.5%), 중국(90.0%), 일본(61.6%)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우리나라보다 자가 주거 비중이 낮은 국가는 독일(53.3%), 스위스(43.9%)가 있음

< 가계의 주거형태 추이 >

년도	전체	구분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1990	100 (1,135)	49.9	27.8	19.1	3.1
1995	100 (1,296)	53.3	29.7	14.5	2.5
2000	100 (1,431)	54.2	28.2	14.8	2.8
2005	100 (1,589)	55.6	22.4	19.0	3.1
2010	100 (1,734)	54.2	21.7	21.5	2.7

자료 : 통계청.
 주 1) ()내는 전체 가구 수(만 가구).
 2) 월세는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기타는 관사, 사택 등.

< 주요국 주택 자가보유비율 >



자료 : 각국 통계청.

- 최근 자가에 거주하는 가계와 임차 가계의 소비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평균소비성향은 임차 가계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반면 자가 가계의 소비성향은 상대적으로 감소
 - **가처분소득** : 과거에는 자가에 거주하는 가계의 소득수준이 전세, 월세 가계에 비해 크게 높았으나 최근에는 전세 가계의 소득 수준이 자가에 거주하는 가계 수준에 육박
 - 1990년에는 자가에 주거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91.1만원으로 전세 가계의 71.4만원에 비해 높았음
 - 2013년에는 전세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349.3만원으로 자가에 거주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인 348.4만원을 넘어섬
 - **소비** : 자가 가계의 소비와 임차 가계의 소비 격차가 점차 축소
 - 1990년에는 자가 가계의 소비는 74.5만원으로 전세(48.1만원), 월세(48.2만원)에 비해 크게 높았음
 - 2013년에는 자가 가계의 소비가 254.4만원으로 전세(248.4만원), 월세(232.5만원) 등 임차 가계와 격차가 축소
 - **평균소비성향** : 최근에는 전세, 월세 등 임차 가계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반면 자가에 주거하는 가계의 소비성향은 상대적으로 감소
 - 1990년에는 자가에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81.8%로 전세 67.3%, 월세 75.4% 등 임차 가계에 비해 크게 높았음
 - 2013년에는 자가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73.0%로 크게 낮아진 반면 전세(71.1%), 월세(78.7%) 등 임차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

< 가계의 가처분소득, 소비 및 평균소비성향 추이 >

(단위 : 만원, %)

	가처분소득(A)				소비(B)				평균소비성향(B/A×100)			
	전체	자가	전세	월세	전체	자가	전세	월세	전체	자가	전세	월세
1990	75.3	91.1	71.4	64.0	60.3	74.5	48.1	48.2	80.1	81.8	67.3	75.4
1995	150.3	172.8	147.9	131.6	112.5	126.4	98.8	97.5	74.9	73.1	66.8	74.0
2000	171.9	200.6	169.0	142.0	148.4	162.8	132.8	119.4	86.3	81.2	78.6	84.1
2005	235.0	264.1	227.7	194.9	192.6	204.5	177.7	161.0	82.0	77.5	78.1	82.6
2010	284.2	308.2	300.9	250.1	231.3	235.1	231.9	210.2	81.4	76.3	77.1	84.0
2013	327.6	348.4	349.3	295.4	250.7	254.4	248.4	232.5	76.5	73.0	71.1	78.7

자료 :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 :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3. 주거형태별 자산효과 추정

○ 주거형태에 따라 부동산 가격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식을 설정

- 분석모형 : 계량모형은 기존의 분석모형(Campbell&Cocco, 2007)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소비 설명변수로는 가처분소득, 이자비용,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월세가격, 금리 등을 사용

< 주거형태에 따른 소비 회귀식²⁾ >

(i) 자가 : $소비_t = \alpha + \beta_1가처분소득_t + \beta_2이자_t + \beta_3주택매매가격_t + \beta_5금리_t + \epsilon_t$

(ii) 전세 : $소비_t = \alpha + \beta_1가처분소득_t + \beta_2이자_t + \beta_3전세가격_t + \beta_5금리_t + \epsilon_t$

(iii) 월세 : $소비_t = \alpha + \beta_1가처분소득_t + \beta_2이자_t + \beta_3월세가격_t + \beta_5금리_t + \epsilon_t$

- 자료 : 분석 자료는 통계청, 한국은행, 국민은행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1990~2013년까지 분기 자료임

·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분기별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주거형태별 소비, 가처분소득, 이자비용 등을 산출

· 소득, 가처분소득, 이자비용,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월세가격 등은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한 이후 X-12 ARIMA 방식으로 계절조정

· 분석 기간은 1990년 1/4분기부터 2013년 4/4분기까지이며 총 샘플 수는 92개임

< 분석자료 내역 >

변수명	자료 출처	자료 및 조정 방법
소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소비 자료를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한 이후 계절조정
가처분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2인 이상 도시가구의 가처분소득 자료를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한 이후 계절조정
이자비용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이자비용 자료를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한 이후 계절조정
주택매매가격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 주택매매가격 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한 이후 계절조정
전세가격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 전세가격 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한 이후 계절조정
월세가격	한국은행 (물가통계)	- 월세가격 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한 이후 계절조정
금리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 회사채 장외 3년(AA-등급) 자료를 이용

2) 각 변수는 log를 취한 값을 사용. 회사채금리는 AA- 3년물을 사용.

○ 최근과 같이 부동산 침체 및 임차 가격 불안정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자가, 전세 및 월세 가구 모두에 소비 위축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실증적으로 분석

- 자가에 주거하는 가계의 자산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가 가계는 주택매매가격이 오르면 실제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 자가에 주거하는 가계의 경우 실질 주택매매가격이 1% 상승할 경우 가계 소비를 0.1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전세 및 월세에 주거하는 가계의 경우 임차비용이 상승할 경우 실제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 전세 주택에 주거하는 가계는 실질 전세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소비를 0.30%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 월세 주택에 주거하는 가계 역시 실질 월세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소비를 0.12%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매매가격 이외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인 소득, 이자비용, 금리, 등은 가계의 주거형태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음
 -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가계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가계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반면 이자비용 증가, 금리 상승 등은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매매 및 전월세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주거형태	독립변수	종속변수
(i) 자가	주택매매가격 1% 상승	소비 0.13% 증가
(ii) 전세	전세가격 1% 상승	소비 0.30% 감소
(iii) 월세	월세가격 1% 상승	소비 0.12% 감소

4. 시사점

-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경제주체의 자산효과를 통하여 소비와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침
 -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가격의 장기적인 침체와 전월세 가격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 주택가격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자가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를 위축시켜 최근 회복세가 미약한 소비와 전체 실물경기가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존
 - 특히 전월세 가격 불안정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임차 가계의 소비 여력 역시 크게 줄 것으로 보임

- 자가 가계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주택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고 규제정책을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
 -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방지하여 주택보유자들의 자산효과를 통한 소비를 유도
 -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계들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강화, 미분양주택 구입 시 세 부담 경감 등을 검토할 필요
 -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구조를 선진국 수준(20~30년)으로 장기화함으로써 가계의 부담을 경감
 -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함으로써 시장에서 충분히 조정된 가격에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민간의 주택투자 및 민간의 부동산 거래활성화 확대를 유도
 - 금융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주택경기 활성화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
 - 채무상환능력 보유자에 대한 LTV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DTI 비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기능을 강화

- 임대소득 과세 시점 연기 및 세부담 완화 등으로 주택구매 심리가 꺾이지 않도록 연착륙 유도
- 임차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우기 위해 전세 및 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
 - 전세 공급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전세 및 월세 가격 안정화 유도
 -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차를 두고 실시함으로써 이주 수요를 조절
 - 주택 임차 제도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 혹은 전·월세 혼합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다양한 형태를 모두 아우르는 정책 대응 마련
 - 소형 및 임대주택의 공급 증대 추진을 통해 전세 공급량 증대를 유도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
 - 주택구입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저리의 금융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전세재계약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적극 확대
 - 최소 년 이상의 전세입자의 주택구입시 장기저리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택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매매 수요 확대

경제연구본부 김천구 선임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2.6	2.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2
일본	2.0	3.7	-1.7	-3.1	-0.2	1.7	4.8	3.9	1.1	1.0	1.4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4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7월 17일	7월 24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45	2.50	0.05%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1.18	101.82	0.64¥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526	1.3464	-0.0062\$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6,977	17,084	107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5,370	15,284	-86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51	2.50	-0.01%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29.1	1,028.6	-0.5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2,020.9	2,026.6	5.7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7월 17일	7월 24일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103.15	103.77	0.62\$
	Dubai	107.99	100.38	107.88	104.96	105.79	0.83\$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298.62	298.89	0.27\$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5	2.1	2.3	2.4	3.5	3.0	3.6
	민간소비 (%)	2.9	1.2	2.6	1.9	1.9	2.1	2.0	2.5
	건설투자 (%)	-3.4	-3.2	-4.6	-3.9	6.4	7.0	6.7	2.6
	설비투자 (%)	4.7	4.3	-4.1	0.1	-8.3	6.2	-1.5	5.4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187	109	400	508	313	486	799	7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0	455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5,836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4.3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381
	(증가율, %)	23.3	2.3	-4.0	-0.9	-2.9	1.4	-0.8	4.4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1.7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6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3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